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 432억 투입...청년농·고령농 동시 지원

[윤성수]

맞춤형 농지지원 374억 확대...경영회생·농지연금 등 안전망 강화

도서지역 '찾아가는 농지은행' 운영...현장 밀착 서비스 확대



해남완도지사는 도서지역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4월부터 완도지부에서 매주 수요일 운영해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대규모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 소득안정에 나선다. 농지 구조개편과 소득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해남완도지사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에 총 432억 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70억 원 증가한 374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은퇴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영위기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는 37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돕는 구조로, 농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령농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농지 매도 후 영농을 중단한 고령농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연금사업에는 11억 원을 편성해 농지

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또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에도 3억 원이 투입된다.

해남완도지사는 현장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도서지역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농지은행 119센터'를 4월부터 완도지부에서 매주 수요일 운영해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경훈 지사장은 "청년농의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맞춤형 농지지원과 현장 중심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